

3) 어린이옷

(1) 저고리

갓 태어난 아이에게는 무명이나 용, 가제 등으로 배넛저고리(배알옷)를 만들어 입힌다. 배알옷의 모양은 길은 길게 하고 겹길에는 등 뒤로 두를 만큼 긴 끈을 달고 안길에는 짧은 끈을 달아, 겹길의 겨드랑 밑에 구멍을 내어 그 속으로 빼서 가슴 위에서 고름을 매도록 한다. 자라면 명베저고리나 어른옷을 줄여 입히기도 하고 어른옷을 짓다 남은 천으로 대충 만들어 입혔다. 겨울에는 누비저고리를 입히기도 했으며 설이나 명절에는 색동저고리(깐치저고리)를 입었다. 색동저고리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인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면 아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현재에도 남아 있는데 이와 관련된 구설이 있었다.

불공을 들여 아들을 얻었다는 사실은 중의 씨를 얻어온 것으로 씨를 준 중은 부인들에게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색동저고리를 입히라고 권했다. 나중에 색동저고리를 입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중의 자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았다고 한다. 이러한 유래가 전해지자 색동저고리를 입는 어린이가 사라졌다고 한다.(제보자 : 김동우, 67세, 서면 지본리) 또는 여인들이 바느질하고 남은 여러 색의 비단 조각을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그들의 아기가 돌이 될 때 정성스럽게 색을 맞추고 이어 붙여 입힌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¹⁾

(2) 바 지

하의는 기저귀만 채우고 백일이 되면 속바지를 입혔다. 그 위에 여성의 고쟁이처럼 폭이 넓고 밑이 터진 풍차바지(바지돛방애)를 지어 입혔으며, 어른들의 옷고름을 접어서 멜빵(밧빵)식으로 어깨에 걸쳤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용변을 가릴 때까지 밑이 보이더라도 바지를 입히지 않고 기저귀만 채우거나 그냥 벗겨놓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여자아이도 어릴 때에는 남자아이와 같이 입히고 돌 때는 대부분 색동옷을 입히며 5~6세부터 치마를 입혔다.

1) 고려대학교 민속문화연구원, 『한국복식사대계』 2권, 1982.